

3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1년 이상 보유 '중과 제외'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 12%'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이날부터 소급 적용=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규제지역 LTV 30%까지 징벌적 세금 중과 폐지·대출 규제 풀어 '수요 되살리기'

과세율을 몰아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 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이로써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1년 더 중과 배제...다주택자도 주택대 LTV 30% 허용=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주택 1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 제외...의무보유 기간 2년→1년·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기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

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적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내려 내년 재산세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금배추 기대' 전남 가을배추 생산량 17% 늘었다

37만4618t으로 전국 생산량의 27.7% 차지

여름 배추 가격이 뛰면서 올해 전남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을배추·무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가을배추 생산량은 37만4618t으로, 1년 전보다 16.9%(5만4168t) 증가했다.

전남 가을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27.7%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다. 전국 생산량은 전년보다 17.9%(20만4881t) 증가한 135만2346t으로 집계됐다.

전남에 이어 충북 생산량이 17만7035t으로 뒤

를 이었고, 경북(17만5446t), 전북(14만8019t), 강원(14만6649t) 등 순이었다.

광주 생산량은 4468t으로, 1년 전보다 7.4%(306t) 증가했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두 자릿수' 증가한 건 정식기인 7-9월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올해 배추 정식기 1kg 도매가격은 2300원으로, 1년 전(1040원)보다 121.2% 뛰었다.

또 배추 포기가 형성되는 9-10월을 뜻하는 결구기에 기온 상황이 좋아서 10a(1000㎡)당 생산량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전남 10a당 생산량은

전년보다 14.7%(1458kg) 늘어난 1만1391kg으로, 전국 10a당 생산량 증가율(12.7%)을 웃돌았다.

전국 생산량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남 가을무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전남 가을무 생산량은 9만8434t으로, 1년 전보다 29.7%(2만2546t) 증가했다.

전국 가을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11.1%(4만8268t) 증가한 48만3819t으로 조사됐다.

무 역시 정식기에 가격이 오르면서 전남 재배면적은 1071ha로, 전년보다 10.5%(102ha) 증가했다.

정식기인 7-9월 무 도매가격은 지난해 kg당 620원에서 올해 1311원으로 111.5%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범죄피해자 돕기 2000만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년 행사에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후원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이번 후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인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1월25일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범죄피해로 인해 일생 동안 그 피해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 자문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변호사·법무사·전문상담사가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힘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12년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후 올해까지 총 1억9000만원을 후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성탄절 아동 소원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두 번째)은 지난 20일 동구 대인동 본점 1층 'KJ베어스 존'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와 함께 연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 행사에 지역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후원금 6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세얼굴

“금융사기 피해 예방·소비자 보호 온 힘”

조철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에 최근 부임한 조철(54·사진) 지원장은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조 선임 지원장은 광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는 “불법·부당한 금융거래로 인한 지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이 빈발한 금융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민들의 금융 이해력 증진을 돕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 다니는 아빠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대기업 종사자 70% 차지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소규모 기업 종사자는 거의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7만36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자가 4만1910명으로 1년 새 8.0%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4.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셈이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3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고, 비중도 75.9%로 낮아졌다.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엄마였으나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 중에는 30대 후반(41.8%)이,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

(40.0%)이 가장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의 71.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반면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은 3.2%에 불과했고, 5~49인 규모 기업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5%에 그쳤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2.4%가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

종사 산업의 경우 아빠는 제조업(22.4%), 엄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T·농축산부 26일~내년 1월 6일...임차료 40%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팔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 유통업이다.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 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때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물류기기 공동 이용 통합관리시스템(atpool.co.kr)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때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8.95(-4.34)
↑ 코스닥	705.70(+2.57)
↓ 금리(국고채 3년)	3.638(-0.047)
↓ 환율(USD)	1285.70(-3.90)